

소설(신인상) 심사평

투고된 소설들을 읽는 몇 주 동안 5·18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질문했다. ‘소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5·18을 기념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그것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소설의 역할은 무엇일까? 어쩌면 그 해답을 소설을 통해 발견하길 원했는지도 모른다. 소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꺾진하게 재현해내는 르포와 다르고 팩트와 정보, 사건의 진후사정을 드러내는 기사나 다큐와도 다르다. 소설이 아무리 사실에 근거해 집필되었다 해도 소설은 소설이다. 그것이 리얼리티에 충실한 ‘리얼한 소설’이라 할지라도 역시 소설은 소설이다. 다시 말하면 소설은 소설만의 방식이 있다. 소설 속에 들어온 소재와 이야기는 픽션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가공되어야 하고 소설적인 방식과 형식을 통해 써져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고민은 작가의 고유한 몫일 것이다. 하지만 고민 끝에 ‘어떤 소설’을 쓴다면 그 소설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인물과 세계를 통해 가장 현재적인 방식과 문제의식으로서 독자에게 5·18을 느끼게 할 것이다.

투고된 69편의 소설들은 이런 고민들로 충만했다. 하나의 소설에서 하나의 5·18을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많은 입장과 해석과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놀라웠고 그것을 읽어나가는 동안 새로운 ‘읽’과 ‘인식’이 생겼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보였다. 많은 소설들이 소재적인 측면에 매몰되어 있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엄두한 탓인지 재현에 대한 압박이 느껴졌다. 그로부터 36년의 시간이 흘렀다. 때문에 사건 자체를 서사로서 다루기 위해서는 제약이 따른다. 어른들의 입을 통해 듣는 후일담 형식이나 사건을 겪은 인물의 현재의 모습에서 과거 사건의 흔적을 찾는 방식 같은 일정한 전형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인지 충실하고 성실하고 꼼꼼한 소설은 많았지만 참신하고 새로운 지점을 품고 있는 소설은 드물었다.

본심에 올려 논의한 작품은 「맞지 않는 옷」 「노란나비」 「문」 「시화전」 「밤이 몰려온다」 「그가 남긴 것」 「기억의 유통기한」 이었다. 「문」은 참신했다. 접근법과 아이디어가 좋았다. 하지만 의미와 상징성이 모호했고 여러 에피소드들이 유기적으로 모아지지 않았다. 「노란나비」와 「시화전」은 문장력과 완성도는 있었으나 익숙한 해석과 평가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밤이 몰려온다」와 「맞지 않는 옷」은 5·18 정신을 보여주는데 충실한 소설이었다. 그러나 이야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아쉬운 점이 많았다. 최종적으로 거론한 작품은 「그가 남긴 것」과 「기억의 유통기한」이었다. 「그가 남긴 것」은 이야기적 요소가 뛰어났다. 유연했고 재미있었다. 하지만 소재를 풀어내는 방식이 단순했고 그래서 자극적이었다. 마치 익숙한 문법의 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 인물들의 모습과 숨겨진 서사 사이의 간극이 느껴지지 않아 있을 법한 혹은 마땅히 있어야 할 아이러니가 느껴지지 않아 아쉬웠다.

「기억의 유통기한」을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이 소설이 다른 어떤 소설보다 잘 쓴 소설이라는 데에 가장 먼저 합의했다. 문장과 구성이 매끄러워 흠잡을 데가 없었고 소설적인 형식과 상징을 적절히 이용해 좋은 소설을 완성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5·18을 기억이라는 방식과 상징을 통해 소설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관

한 고민이 느껴졌고 고민 끝에 써내려간 소설은 설득력이 있었고 울림이 있었다.

5월 18일 일주일 앞 둔 시점에 이 글을 쓰고 있다. 읽은 소설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한 편의 소설을 당선작으로 정했지만 여러 소설을 읽는 내내 독자로서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일일이 호명할 수 없지만 귀한 소설을 읽게 해준 작가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전한다.

심사위원 : 정지아, 정용준